

두 복서의 합일, “우리는 복서다”

국내 최초 여자프로권투 세계챔피언(IFBA·플라이급)에 등극, 주먹 한방으로 인생사를 비운 복서 이인영(32)과 4전5기 한국 권투신화의 주인공 홍수환(53)이 함께 링 위에 올랐다. 물론 최근에 유행하는 성대걸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인영의 손에는 <글러브 대신, 나는 챔피언이다>(들녘)가, 홍수환의 손에는 <누구에게나 한방은 있다>(해토)가 들려 있었다.

이인영과 홍수환 모두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인영이 차마 이력서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과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이유는 "좌절과 방황의 기록에 지나지 않을 나의 발자취가, 아직 길을 찾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찾는 도구로 쓰였으면 하는 겸허한 바람"이다. 홍수환 역시 "권투선수로서 나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있게 했던 몇몇 경험담과 나이 오십이 넘은 지금도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다.

주먹으로 세계를 누인 두 사람이 링에서 나눈 이야기는 권투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또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1라운드 종이 울리자 이인영의 씩스러운 미소가 홍수환의 안면을 향해 날아갔다.

이인영 존경스러우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작년 제가 초대 한국 챔피언 됐을 때 오셨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어, 홍수환 선수네' 하면서요.

홍수환 그때 시합이 캐피탈 호텔에서 열렸지. 많이 걱정했다. 너도 걱정했고, 상대인 김주희(당시 17살. 한 방송사에서 김주희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 <때려>가 방송되고 있기도 하다)도 걱정했지. 하지만 난 인영이 너도, 주희도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투선수에 남자냐 여자냐는 없거든. 글러블을 끼고 있으면 다 똑같은 복서지. 경기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한다. 동정은 금물이다. 왜냐. 복서니까.

이인영 맞아요. 링 위에서는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쓴 책 제목처럼 전 복서일 뿐이죠.

홍수환 네가 지나온 인생스토리를 듣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에서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지. 하지만 역시 네가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구차하고 어렵게 자랐던 지난 시절 때문일 거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게 사람 아니냐.

이인영 주변에서 저를 보고 일본의 신화적인 권투선수 와지마 고이치를 떠올렸다면 격려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와지마 고이치도 저처럼 트럭 운전을 하다 서른 살에 처음 권투를 시작했는데 훌륭한 선수가 됐잖아요. 그래봐야 2년 전이지만, 선배님 얘기처럼 지금 생각하면 지난 시절이 다 오늘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아요.

홍수환 그렇지. 나도 50전 가운데 41승 14KO 성적으로 은퇴했지만, 5패의 쓰라린 흔적도 남아 있거든. 그 중에서 똑같은 선수에게 두 번 진 기록이 있어. 그런데 오히려 내가 알폰소 카라모에게 두 번 KO로 진 건 카라스키아와의 세 번째 시합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었지. 두 번 졌을 때 생각했다. 포기하느냐, 단 한 번만 더 해보느냐. 나는 한 번 더 했어. 만약에 내가 그런 과정 없이 카라스키아와 붙었다면 네 번 다운되기도 일어섰던 4전5기 신화는 없었을지도 몰라. 그게 복서의 운명이지.



《나는 복서다》이인영 지음 | 들녘 | 238쪽 | 값 8,500원

이인영은 1971년 전남 광주시에서 2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광주 세중고를 졸업하고 지난한 삶의 방향기를 거쳐 2001년 8월 복싱에 입문했다. 2002년 11월 여자 플라이급 초대 한국챔피언이 되었고, 2003년 1월에는 한·일 여자프로권투 플라이급 챔피언 슈퍼매치에서 일본의 아시아 유미 선수에게 심판 전원 판정승을 거두었다. 지난 9월에는 프로입문, 2년만에 여자프로복싱 세계챔피언(IFBA·플라이급)에 등극했다.



《누구에게나 한방은 있다》홍수환 지음 | 해토 | 232쪽 | 값 9,000원

홍수환은 1972년 OPBF 밴텀급 동양챔피언에 올랐다. 197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건너가 아놀드 테일러를 물리치고 WBA 밴텀급 세계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고, 국제전화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로 방송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1977년 '지옥에서 온 악마' 카라스키아를 '4전5기'로 물리치고 WBA 주니어 페더급 세계챔피언에 오르면서 국내 복싱사상 최초로 두 체급 석권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10년간의 미국생활 이후 1992년 한국권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권투해설위원과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성공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BOXERCIZE 회장을 맡고 있다.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았던 출생(그녀가 태어난 날 그녀의 집 대문에는 숫 대신 빨간 고추가 걸렸었다)으로 시작된 이인영의 인생은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다. 고교 졸업 후 미용사 보조, 봉제공장 실밥 따기, 학원셔틀버스 운전자, 택시기사, 트럭운전자... 1993년에는 자동차사고로 아버지와 큰오빠를 함께 잃어야 했고 그 후 이인영의 인생은 슬독에 집어넣어졌다.

홍수환의 시련은 권투 뒤에 찾아왔다. 타이틀을 빼앗기고 가수 옥희와의 염분이 터지자 '국민을 배신한 챔피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렇게 한국을 떠난 홍수환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택시운전을 하며 10년을 보냈다. 다시 귀국한 게 1993년. 그러나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던 그는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해결사로 몰리기도 했다.

그 산전수전을 다 겪은 두 사람, 현재 이인영은 세계 챔피언이고 홍수환은 성공학 강사다. 권투로 일어섰던 이들은 여전히 현장의 챔피언. 세상이라는 이름의 링에 선 챔피언인 것이다.

이인영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2001년 8월이었는데 트럭운전을 할 때였죠. 수금을 나갔다가 거래처에서 한 잔 마신 낫살 때문인지 속이 좋지 않아 집에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토하도록 마시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김 메서오와 미셸 셔클리프 선수의 세계 타이틀매치가 중계방송 되고 있었는데 리모콘을 잡은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우연히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어요. 선배님은 어떻게 권투를 시작했어요?

홍수환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바로 우리나라 첫 세계 챔피언인 김기수 선수야. 1966년 고1 이었는데 카퍼레이드 할 때 가방을 들고 봤지. 내가 권투라는 걸 해야겠구나 마음먹은 계기였어. 결국 꼭 8년 후 같은 자리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지. 인영이도 마찬가지다. 꼭 따라하는 사람이 있거든.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복싱에 자질이 있어.

이인영 우리나라 여자들이 억척스럽잖아요. 싸울 때도 느껴요. 우리나라 선수와도 싸워보고 외국 선수와도 싸워봤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와 싸우는 게 더 힘들어요. 여자들이 본격적으로 권투를 하면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배님도 복싱의 대중화를 위해 후배 복서를 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수환 내가 권투기술은 가르쳐 줘도 마음이 모질지 못해. 왜냐면 내가 겪어봤기 때문이야.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이 몸무게를 53킬로그램으로 만들려면 거의 죽는다. 내가 싸우는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어도 챔피언은 못 만들지. 챔피언은 기술이 아니라 자기관리와 정신력이거든. 선수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링에 올라가보지 못한 프로모터 매니저들이지.

이인영 전 링 밖에서와 링 안에서 너무 달라요. 솔직히 제일 힘든 곳이 링 안이기는 하지만 저도 모르게 투지가 생기고 정신력도 강해져요. 저번 경기 직전에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링에 올라서니까 긴장이 풀리고 집중이 되더라구요.

홍수환 《누구에게나 한방이 있다》를 왜 쓴 줄 아니? '이인영이 세계 타이틀에 도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으로 먼저 의문부터 품는 거야. '절마 우리나라 여자가 될까?' 하고. 하지만 우리 권투를 하는 사람은 의문이 필요 없잖아. 여기서 한 방은 희망이다. 끝보기에 아무리 형편없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이룰 수 있는 뭔가는 있는 법이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쓴 책이다.



…… 우리나라 여자들이 억척스럽잖아요. 싸울 때도 느껴요. 우리나라 선수와도 싸워보고 외국 선수와도 싸워봤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와 싸우는 게 더 힘들어요. 여자들이 본격적으로 권투를 하면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사각의 링에서 펼쳐지는 권투도 인생과 같다. 특히 인생의 참맛은 팽팽한 접전 끝에 맞은 마지막 라운드에 맞출 수 있다. 정말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인생이다.

이인영과 홍수환.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는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둘 다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챔피언은 언제 어디서나 챔피언인 것은 여기서도 증명된다. **이인영**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